

숨은그림찾기 <101>



아하! 오늘이 바로 그날

'전남 최대 역사' 영산강 하구언 준공

'동양 최대의 인공 담수 호, 명실상부한 전남의 젓줄'

지난 1981년 12월 8일 광주일보에 실린 '영산강 하구언 준공' 기사 제목이다.

영산강 하구언 공사는 영산강유역 농업종합개발사업 가운데 가장 핵심 사업으로, 무안군 삼향면 옥암리와 영암군 삼호읍 산호리 사이를 가로막은 토석제(흙으로 쌓은 제방)로 건설됐다.

길이 4천350m·최대 높이 20m·저수량 2억 5천300만㎥에 이르고 총 공사비 421억, 연인원 91만명이 투입된 대규모 공사다. 토석 투입량(291만4천㎥)은 서울에서 목포까지 너비 4m, 높이 2m의 독을 쌓을 수 있는 양과 맞먹는다.

당시 본보는 1면과 3면에 '영산강 하구언 사업은 바닷물이 영산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것을 차단, 강이 범람하는 것도 방지하며 목포·영암·함평·나주·무안 등에 농업 용수를 공급해 어떤 한발에도 피해를 입지 않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 영산강 유역을 전천후 농토로 만들고 물이 남아 목포시를 비롯해 무안·함평 등에 1일 8만, 연간 2천900만의 상수도 공급할 뿐 아니라 공업용수도 1일 5만, 연간 1천800만㎥를 공급해 농·공업 양면에 거대한 기여를 하게 된다 고 했다.

한 마디로 '바다는 바다로, 강은 강으로 갈라 서게'만들어나가면서 홍수와 한해의 대명사인 영산강의 이름을 영원히 바뀌놓을 '기적의 독'이 지어진 것이다.



지난 1981년 12월 8일 본보 1면에 실린 '영산강 하구언 준공' 기사.

26년 뒤, 전남발전연구원원은 최근 이렇게 만들어진 영산호 수질 오염도가 심각하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의뢰로 '영산호 수질개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영산호 상류지역 일부 구간의 경우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농업용수 수질 기준인 4급수, 8ppm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연히 소유자인 건설교통부와 수질·환경 관리를 맡고 있는 환경부가 국가 관리 하천을 이 지경까지 방치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 이상의 수질악화를 막기 위해 8개의 배수 갑문 가운데 일부를 개방, 바닷물을 유동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5만8천ha에 공급되는 농업 용수가 없어진다는 점에서, 상류 지역에 환경 기초 시설 설치를 강화 방안도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이 담보상대다.

'전남의 젓줄'을 살릴 '기적의 방안'이 나올 때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자와 대리

출장에서 돌아온 부장이 부하 직원에게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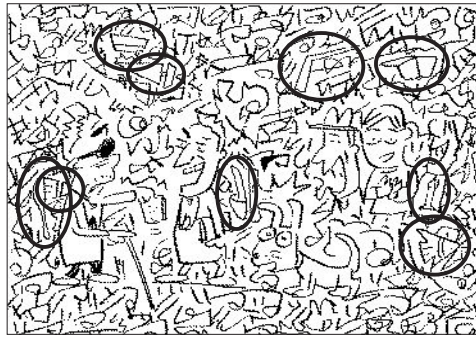
부장 : "나 없는 사이에 또 그녀석이 술 마시고 주정부렀다며?"

직원 : "늘 하던대로 아무에게나 욕하고 그랬죠 뭐."

부장이 혀를 차며 말했다.

부장 : "그녀석 술만 안 마시면 벌써 대리 달았을텐데.."

직원 : "괜찮을 거예요. 술만 마시면 사장이 되는 걸요. 뭐.."



지난주 정답

서를족, 스펀, 프라이팬, 다리미, 열대어, 뚝뚝배, 슬피파, 뚝, 운동모자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 이수연(광주시 서구 쌍촌동) 김연우(광주시 남구 주월동)

A large Go board (바둑) diagram for a problem. It shows a complex position with numbered stones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and a '참고도' (reference diagram) showing a specific sequence of moves. The problem is for a 9-dan player to find a win.

A section for a Go problem titled '제188회 전국체전' (188th National Sports Meeting). It features a '여성 일반부 결승전' (Women's General Category Final) between '이수빈 5단 (경기도)' and '조경진 5단 (경기도)'. The text describes the game, mentioning '참고도' and '백 80은 세블리를 의식한 갖디값은 삭감인데 조경진 5단 참지않고 흑 83,85로 이단짓혀 강력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Source: <오규철 9단·본부 바둑해설위원>

A section titled '바둑소식' (Go News) reporting on a match between '원성진, 천원전서 2연승' (Won Seong-jin, 2 consecutive wins in the 200,000 won tournament). It details the match progress, mentioning '원성진 8단이 4일 강원도 양구에서 열린 제12기 박카스배 천원전 결승 5번기 제2국에서 강동운 7단을 136수 끝에 백 불계로 꺾었다.' Source: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뉴스퀴즈

92. '13월의 보너스'시즌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느라 바빠졌습니다. 국제청은 소득공제에 필요한 8개 항목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8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①골프 접대비 ②보험료 ③신용카드 ④교육비

참여 방법 /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A horoscope section titled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Knowing the天命, Today's Fortune) for December 5th. It lists fortunes for various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includes a '바둑소식' (Go News) sub-section with the text '원성진, 천원전서 2연승'.

Advertisement for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Band). It features a photo of a woman and child and the tex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Derma-Plast'. Contact information: 062-383-5883.

굿모닝 잉글리쉬 <1048>

English lesson titled 'Do you have a reservation, sir?' (예약하셨습니까? 손님). It includes a dialogue and a list of key phrases: reservation (예약), I am afraid (아쉽게도), check (확인하다), a room available (이용 가능한 방), Please wait a second. (잠깐만요).

오하오우 니혼고 <1048>

Japanese lesson titled '言ってもだめ。しつこいから。' (Even if you say it, it's no use. Because you're annoying). It includes a dialogue and explains the phrase '迷惑(めいわく) ~' (bothering ~).

니하오 풍구위 <25>

Chinese lesson titled '多不多? 많니?' (Many or not?). It includes a dialogue and a list of key phrases: 超市人多不多? (Are there many people in the supermarket?), 不多 (Not many).

한자 이야기 <665>

Chinese lesson titled '東家食西家宿' (Eat at the east house, stay at the west house). It explains the idiom and provides a modern interpretation of the story.